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11.(수)

#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예수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.

**<보도내용>**

□ 2026.11.10. 국민일보는 「국민연금까지 끌어쓸 길 열어놔…미래기금 '독소조항' 논란」 기사에서,

○ "미래대응기금이 국민연금 여유자금까지 맡길 수 있도록 사실상 창구를 열어두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. 여유자금을 굴릴 때 최소수익률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고, 기존 자금 운용 절차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도 불분명하다. … 하지만 보호장치가 미비한데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받을 길을 만들어 둔 것은 폐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."고 보도하였습니다.

**<기획예산처 입장>**

□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예수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.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미래대응기금은 농어촌특별회계 등 추가·초과세수적 성격의 세목을 재원으로 하는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·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·예탁에 관한 조항(미래대응기금법 제10조)을 두었습니다.

○ 해당 조항은 예탁을 하는 회계·기금의 근거법에 예탁의 근거 조항이 없더라도 미래대응기금에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, 예탁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절차까지 배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.

○ 따라서 다른 회계·기금이 미래대응기금에 예탁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·의결 등 근거 법률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□ 미래대응기금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, 기금등의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'27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농특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편성금리와 동일한 4.1%로 설정하였습니다.

| 담당 부서 | 미래전략기획실<br>미래대응기금 추진단 | 책임자 | 단 장 박성훈 (044-214-1690) |
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박성준 (bbakko@korea.kr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